

●●● 류경선 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양계특화협력단, 경쟁력 있는 양계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친환경 사양관리 연구

류경선 교수는 1986년 전북대학교 가축영양 및 제조학 전공 석사과정으로 축산학에 입문하면서 1989년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가금영양학 전공으로 가금의 친환경 사양관리를 위한 사료개발에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해왔다. 1995년부터 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

올 해 4월, 양계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양계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이하 양계특화협력단)이 구성되었다.

협력단은 양계농가는 물론 관련인들의 국제 교류를 위해 지난 8월 24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에서 “한·중·일 양계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양계산학연 사업단장인 전북대학교 류경선 교수를 만나 양계특화협력단의 취지와 전북지역의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류경선 교수

1983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학사
1986 전북대학교 축산학 가축영양학 농학석사
1994 미국 조지아대학교 가금영양학 농학박사
1995~현재 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가금학 교수
현재 한국가금학회지 편집위원장
전북 양계산학연사업단 단장

과 교수로 후학양성과 함께 연간 평균 10여편의 논문을 기고하였으며, 한국가금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서 학회지 편집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재 양계연구사이트(<http://poultry.chonbuk.ac.kr>)를 통해 부화과정, 사양관리, 질병, 품종, 가공 등 양계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양계산학연협력단과 연계되어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술자문과 경영컨설팅 제공

전라북도는 국내 양계 생산의 육계 25%, 토종 닭 20%를 차지하면서, 국내에서 35~40%의 도계 실적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국내양계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양계산학연협력 사업이 선정되면서 축산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구성된 바 있다.

양계산학연협력단은 최근 자유시장 경제의 확산과 무역시장 세계화의 물결로 경쟁력 있는 양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양계인에게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종합적인 기술서비스로 양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계농가의 생산에서 출하, 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중심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술, 경영,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컨설팅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표1. 양계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기술전문위원

구분	성명	소속	전공
학계관련	류경선 교수(단장)	전북대학교	기금학
	송희종 교수	전북대학교	전염병학
	김철수 교수	전북대학교	축산기계학
	장형관 교수	전북대학교	조류질병학
	황인호 교수	전북대학교	식육학
	유찬주 박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
연구 지도기관	이중보 연구팀장	익산시 농업기술원센터	중소가축학
	오일환 컨설턴트	대림축산	가축생산학
	지호진 대표	성진동물병원	가축사양학
관련단체	권성수 이사	화성산업	사료학
	박광식 대표	대한양계협회 전북 김제지부	
	문정진 국장	한국토종닭연합회	
	김광삼 지부장	정읍토종닭연합회	
총 13명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유도

기술전문위원은 올 한해 집단 사육 농장 방문을 통해 친환경 사료개발을 위한 항생제 대체제(미생물, 효소, 유기산제 등) 사용을 유도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질병위생 관리 지도를 통해 병성감정을 비롯해 신속, 정확한 진단으로 농장별 적합한 후속조치와 방역지도로 질병 없는 양계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장기 계획으로 종계사료의 분석을 통해 사양프로그램과 생산성 관련 농장별 개선점을 지도하여 최종적으로 고품질 육계생산을 목표로, 계사내 환경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여 만성적인 질병의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움에서 해외 양계정보 공유

한편, 양계특화협력단은 “한·중·일 양계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국내양계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자문 추진방향 등 FTA에 대응한 양계산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으로 앞으로 경쟁력있는 양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4개 분과별로 한국 양계산업의 동향과 전망(서옥석 박사), 한국중계산업의 현황과 전망(인정섭 대표), 중국양계산업의 동향(지광하이 박사), 일본양계산업의 동향과 전망(이시바이테루 박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정리 | 장성영 기자)